

전남도 '공유재산 감사' 숨은 자산 8208억원 찾았다

6개월간 22개 시·군 특정감사... 11만1696건 자산 불일치 확인 실거래가 최대 4조원대 추정...누락·중복 등 부실 관리 시정 건의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특정감사를 통해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일일이 대조한 결과 공시지가가 8208억원에 달하는 토지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유재산에 대한 형식적 실태조사, 잦은 인사와 적은 인원의 부실한 전담 조직으로 인해 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다. 실거래가가 개별공시지가의 3~5배 이른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누락 공유재산의 가치는 2조4000억에서 4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2개 시·군과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전남도 8조4323억원, 22개 시·군 45조9537억원 등 모두 54조3860억원의 공유재산을 파악했다. 이들 공유재산 목록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대조한 결과 모두 11만1696건의 자산 불일치 사례가 확인되면서 숨어있던 자산 3만1164건(8208억 9153만원 상당)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어 국·공유지를 무단점유 중인 골프장·리조트업체 등에 3억8343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특허청(KIPRIS)에 22개 시·군

명으로 등록·관리 중인 지식재산권 2773건을 전수 조사해 1939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실태조사 후 누락자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나주시가 3834억9275만여원으로 가장 누락 규모가 컸고, 이어 광양(1153억7757만여원), 무안(394억3726만여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남지식센터가 무허가 특허를 도내 기업과 연계해 화장품을 개발, 2023년 350억원의 매출액을 창출한 사례와 일본 구마모토현이 지역캐릭터 활용으로 연간 1조58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한 우수사례를 제시하며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시·군에 공유재산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전남도에 총액인건비 외 증원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했다. 현재 전

남도에서는 4명의 직원이, 시·군에서는 평균 2.5명이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또 고흥·화순군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하는 사례를 나머지 시·군에 권장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부동산 등기 관련 중요 자료가 연계되도록 시스템 개선을 정부부처에 건의할 것을 통보했다.

이어 폐교 등 유휴건물 67개소와 대규모 유휴토지 54개소의 활용실태를 점검해 활용, 저활용, 미활용, 3단계로 분류하고 답답 복합문화공간과 일본 효고현 폐교 활용 등 국내외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도심과 농촌 지역별 맞춤형 '활용 권고안'을 제시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1973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268.11km²)과 상수원보호구역

(183.8km²) 내 불법행위 단속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며, 드론 등을 활용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전남도 지역계획회에서 발굴한 18개 사업에 필요한 해제 부족량 13.6km²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하천(지석천 3.2km²) 및 국립공원(무등산 국립공원 25.7km²) 등을 대체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대안도 제시했다.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지방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자치단체장들이 공유재산 관리제에 전념해 걸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30일 구례소방소 다목적홀에서 열린 '구례소방서 개청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 '1시·군 1소방서' 완료

구례 소방서 개청...소방공무원 107명 배치

30일 구례소방서가 개청하면서 전남 22개 시·군 모두가 소방서를 갖춰 화재·안전사고 등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날 개청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봉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구례소방서는 지난해 3월 착공을 시작으로 총사업비 약 89억원을 들여 5791㎡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과, 예방안전과로 구성됐으며, 1개 119안전센터(구례)와 2개 구조대(구례·산악)를 운영 중이다. 총 107명의 소방공무원과 소방장비 23대가 배치돼 2만4000여 구례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 22개 모든 시·군에 소방서가 문을 열어 대단히 든든하다"며 "구례소방서가 주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믿음직한 안전지킴이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노후 관광지 3곳 60억 들여 재생사업

시·군 공모 진행...각각 20억 투입 주차장 등 시설 정비

전남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한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남도가 노후화된 관광지를 개선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시·군 공모를 통해 3개소의 노후 관광지에 대해 각각 20억원씩 모두 60억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는 30일 "지정 관광지·관광특구 29개소를 점검하고, 노후화가 심한 관광지를 선정해 시설개선 등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29개소(관광지 27·관광특구 2) 중 19개소가 지정된 지 2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최신 관광경향(트렌드)에 뒤떨어져 관광력 저하가 우려된다.

이들 노후 관광지 중 3개소를 선정해 화장실, 주차장 등 시설 정비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등을 보강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새단장할 계획이다.

10년이 넘어 노후하고 개선이 필요한 관광지를 보유한 시·군에서 개선 사업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면, 관광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개소당 20억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2018년 화순 도곡온천 관광지를 시작으로 담양호 탐방로 데크 개보수, 영암 성기동 한옥체험관 및 배수로 정비, 장성호 전방대 리모델링 등 2023년까지 243억원을 투입해 14개소의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을 추진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택시 서비스 실태 점검

시민 모니터링단 230명 모집...3~12월 매월 4회 이상

광주시는 "2월 16일까지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시민 모니터링단 230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내버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광주시 누리집 공공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eownd123@korea.kr), 우편, 팩스로 보내면 된다.

모니터 요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4회 이상 시내버스와 택시에 탑승해 운전원 친절도, 안전운행 여부, 불편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점 등 전반적인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게 되며 활동 실적에 따라

실비가 지급된다.

점검(모니터링)은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한 인터넷주소 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자동 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과 시내버스 운송업체 성과이윤 차등 지원 등 평가 관련 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에는 시민 모니터링단 270명이 8365건을 점검해 불편사항 53건은 운수업체에 통보하고 시정토록 했으며 친절 운전원 15명에게는 시장표창을 수여했다.

백은정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는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자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라면서 "시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개선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

광주시, 내일까지 백화점·대형마트

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31일부터 2월 1일까지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등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지역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8개 제품군이다. 포장 횟수를 초과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의 심제품에 대해서는 포장 검사 명령을 내리고, 전문기관 검사결과에 따라 제한 기준을 초과한 제품으로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명절 판매량이 많은 1차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 포장 횟수는 2차 이상, 포장 내 공간비율은 25% 이하를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시인의 사진
아름다운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정경
시인 043

이은이 | 조선의
퍼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가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가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가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